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	--	-------	--	--	--	---	--	--	--	----------

영민와 사상

1.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 지능은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대체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인공 지능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각각에 요구되는 바가 있다. 인공 지능에 요구되는 것이 정확성, 신속성, 효율성의 증대라면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다움과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통찰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 ① 인공 지능 기술을 포기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지향해야 한다.
- ② 인공 지능과 공존하기 위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길러야 한다.
- ③ 인간에 대한 윤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 ④ 인간의 고유성 실현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인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첨단 기술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색(色)은 무상(無常)하고 변하는 것임을 안 뒤에는 색을 인연(因緣)하여 괴로움이 생겼더라도 그것은 끊어지고, 그것이 끊어진 뒤에는 집착할 것이 없게 된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고, 평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을 열반(涅槃)이라고 한다.

- ① 바른 수행을 통해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정립해야 한다.
- ②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명(無明)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③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물이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④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깨달아 번뇌를 소멸시켜야 한다.
- 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영원불변함을 자각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유발할 수 없고 어떤 의욕도 불러 일으킬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우리의 정념에 상반된 방향의 충동을 주는 것 이외에는 의욕을 방지할 영향력이 없다. 이성만으로는 정념의 노예이고 또한 그레야만 한다. 바꿔 말해 이성은 정념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

<보 기>

- ㄱ.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는 정념이 아니라 이성이다.
- ㄴ.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는 행위는 시인의 정서를 일으킨다.
- ㄷ. 쾌락과 고통의 감정은 도덕적 선악 구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ㄹ.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의 지극히 올바른 도(道)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시키고 오상(五常)과 사단(四端)의 마음을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의 것이 융성하게 되면 저들의 것이 사라질 것이요, 이쪽의 것이 밝혀지면 사악한[邪] 것들의 싹이 잘릴 것이다.
 을: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서양의 종교[洋學]는 우리의 도와 같은 듯하나 다름이 있고 기도하는 것 같으나 내용이 없다. 그들의 도는 허무에 가깝고 종교는 한울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다름이 없다고 하겠는가?

- ① 갑: 국력의 증진을 위해 전통적 정치 체제를 변혁해야 한다.
- ② 갑: 동양의 정신문화와 서양의 과학 기술을 조화시켜야 한다.
- ③ 을: 유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신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④ 을: 내세에서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한울님을 섬겨야 한다.
- ⑤ 갑, 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양 종교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5.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각 개인이 감각 경험을 통해 지각하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무엇 이든지 간에 그 자신에게 있어서 진리가 됩니다.

각 개인을 만물의 척도라고 한다면 보편적 진리를 탐구할 수 없습니다.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해야 합니다.



갑



을

- ① 갑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주관적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보다는 자연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이(理)와 기(氣)가 합하여 사람의 한 몸이 생겨난 까닭에 두 가지가 서로 발하고[互發] 작용하며, 발할 때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 발하기 때문에 각각 주(主)가 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각각 주가 되는 것이 있으므로 분별하여 말해도 되는 것이다.
 을: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아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이는 무형무위(無形無爲)이며 기는 유형유위(有形有爲)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도 하다.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이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

- 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임을 간과한다.
- ② 사단은 본래 순수하게 선[純善]한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③ 사단과 칠정의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를 것을 간과한다.
- ④ 기의 탁함은 불선(不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이는 기가 발하는 까닭일 뿐 발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7.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을: 도(道)가 없으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없으면 인이 나타나고, 인이 없으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으면 예가 나타난다. 예는 충신(忠信)의 알팍한 껌질이며 혼란의 시작이다.

- ① 겸허와 부쟁의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②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예를 실천해야 하는가?
- ③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④ 준비천소의 구별이 없는 사랑인 인을 베풀어야 하는가?
- ⑤ 도덕보다는 엄격한 법률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가?

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지혜로운 사람은 자족을 가장 큰 선으로 생각한다. 비록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만족하며, 죽음, 신 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ataraxia]를 유지한다.
 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에는 항상 무관심하다. 또한 실수를 하거나 해를 입어도 정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여기며,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apatheia]를 유지한다.

- ① 갑: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 ③ 을: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주어진 운명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 ④ 을: 이성인 인간의 본성이자 자연의 본성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⑤ 갑, 을: 정치 참여 의무를 이행하여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9.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들에 달려 있다. 이러한 쾌락과 고통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을: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쾌락의 양이 적더라도 어떤 하나를 분명하게 원한다면 그 쾌락을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규정해도 될 것이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 기>

- ㄱ. A: 모든 인간은 쾌락과 고통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인가?
- ㄴ. B: 공리 증진을 위해 개인의 쾌락을 항상 배제해야 하는가?
- ㄷ. C: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고상한 쾌락이 더 바람직한가?
- ㄹ. C: 동일한 양으로 측정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옳르게 성공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에 속하는 것이며, 중용은 덕에 속하는 것이다.
-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념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 반해, 자제력 있는 사람은 여러 욕구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이성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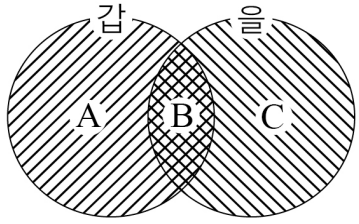
<보 기>

- ㄱ.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는 품성적 덕이다.
- ㄴ.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 ㄷ. 도둑질과 같은 행위에도 중용의 상태가 존재한다.
- ㄹ. 중용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품성적 덕이 형성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람에게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마치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이 있는데도 자신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다.
 을: 사람의 본성[性]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이러한 본성에 따르면 싸우고 빼앗는 일이 발생하고 사양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예(禮)로써 다스려야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ㄱ. A: 인간은 누구나 사단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ㄴ. B: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수양을 해야 한다.
 ㄷ. C: 인의(仁義)가 실현된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ㄹ. C: 타고난 예(禮)를 발휘하여 악한 본성을 규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중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3점]

모든 법이 다 자성(自性)에 갖추어져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으므로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 단박에 깨닫는[頓悟] 가르침을 듣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하는 중생은 모두 다 당장에 깨닫게 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자신의 본성과 부처의 본성은 본래 다르지 않다.	✓	✓		✓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에 몰두해야 한다.	✓		✓		✓
선(禪)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직관해야 한다.		✓		✓	✓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본래 불성(佛性)이 없는 사람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판단력과 같은 정신의 재능들 또는 용기, 결단성과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 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②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유용성이다.
 ③ 행위의 동기가 악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선한 것이다.
 ④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⑤ 도덕 법칙에 따르는 삶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늘은 인간에게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쉬운 몸을 부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본성[性]을 부여했다. 만약 이 본성이 없었다면 예로부터 아주 조금의 선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보기>
 ㄱ. 인(仁)의 덕은 측은지심의 확충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ㄴ. 인간은 자주지권(自主之權)이 있어 선악을 선택할 수 있다.
 ㄷ. 인간과 동물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를 지니고 있다.
 ㄹ.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천리(天理)를 실현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의 진리가 인간 이성의 능력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성이 지니는 진리는 신앙의 진리와 상반될 수 없다.
 을: 신은 곧 자연이며, 자연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으며,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 ① 갑: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구별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 없다.
 ② 갑: 영원한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현세에서 실현할 수 있다.
 ③ 을: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④ 을: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⑤ 갑, 을: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다.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나는 꿈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았다. 나비는 유쾌하고 어색함이 없어서 나임을 깨닫지 못했다. 잠시 후 화들짝 꿈에서 깨어보니 나였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 나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를 가리켜 사물의 변화[物化]라고 한다.

- ① 도(道)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시비선악을 구분해야 한다.
- ② 좌망과 심재의 수양을 통해 예악(禮樂)을 바로 세워야 한다.
- ③ 오감(五感)으로 지식을 쌓아 몰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④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기 위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⑤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齊物] 한다.

1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만약 효의 이치[理]가 부모의 몸에 있다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곧 내 마음에는 과연 어떠한 효의 이치도 없겠는가? 또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측은히 여기는 이치가 있는데, 이 측은히 여기는 이치는 과연 어린아이의 몸에 있겠는가? 이치는 내 마음[心]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앎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 고 생각한다.

- ① 모든 사물에는 각각의 이치가 내재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욕을 제거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도덕적인 지식[知]보다 실천[行]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누구나 양지(良知)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님을 모르고 있다
- ⑤ 사물의 이치가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

18.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두 가지 문은 그 본체가 둘이 아니므로 모두 일심법(一心法)일 따름이다. 일심은 일체의 물들과 깨끗한 모든 법이 의지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모든 법의 근본인 것이다.
을: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가지 문은 모든 성인(聖人)이 밟아온 길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도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았다. 미혹함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돈오이며, 범부(凡夫)가 변해 성인이 되는 것은 점수이다.

- ① 갑: 자비(慈悲)의 실천을 통해 중생 구제에 힘써야 한다.
- ② 갑: 일심으로 보면 깨끗함과 더러움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 ③ 을: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는 수행을 해야 한다.
- ④ 을: 누구나 돈오를 하면 모든 습기(習氣)가 곧바로 제거된다.
- ⑤ 갑, 을: 불교 종파 간 대립과 갈등은 조화롭게 해소될 수 있다.

1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생들에게
학생 여러분, 참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상(偶像)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이나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은 우상을 제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 기>
ㄱ. 진리 탐구를 위해 전통적인 권위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ㄴ. 관찰과 실험이 아닌 이성적 추론으로 지식을 탐구해야 한다.
ㄷ. 자연 과학적 지식으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ㄹ.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 오직 연역적 방법만을 활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국가와 개인에게 똑같이 세 부분이 있고, 각 부분이 제 기능을 할 때 국가든 개인이든 올바르게 된다. 만일 국가의 세 계층이 각각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서로 참견하거나 일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절제 있고 또 정의롭다는 것이 분명하다.

- ① 민주 국가 실현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 ②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재화를 생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 ③ 좋음[善]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 ④ 통치자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은 절제의 덕을 지녀야 한다.
- ⑤ 국가 안에서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